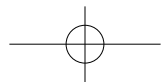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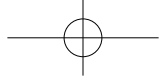


# 박물관사람들

2013년 겨울 44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목판본 별자리 그림 부분, 국립고궁박물관

## 책을 만들면서

하얀 아주 하얀 눈이 내려요. 보고파요. 하얀 눈이 내릴 때 또 만나요...(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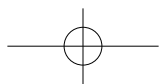
이번 동지에는 꼭 팔죽 끓여 먹어야지...(愛)

별이 빛나는 밤에..... 라면이 최고...(음)

머물러 있던 너의 어느 날들과 만나다...(鉉)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 사막은 너무 먼니 가까운 천문대라도 가야겠다...(文)

반짝반짝 빛나는 별만큼 빛나기를...(禎)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13년 겨울 44호

### 기획 | 조선 후기의 과학문화재

- 04 조선 후기의 과학문화재
- 08 혼천의? 혼천시계!
- 11 星變, 또는 우주쇼

### 전시실 산책

- 14 청동기를 읽다

### 문화칼럼

- 18 긴 겨울밤 동지 이야기

### 회원마당

- 21 청자 향로
- 24 콩고강에서의 삶

### 학술상

- 26 옥애 김진여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일변

### 숨은 전시

- 31 풍경을 마시다

### 박물관회 소식

- 32 한국박물관회연맹(KFFM) 소식
- 33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모집
-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3년 12월 3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위원 강현자·계운애·길문숙·서유미  
진행 오윤정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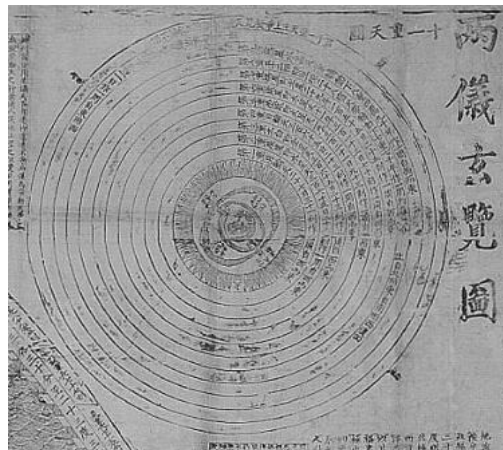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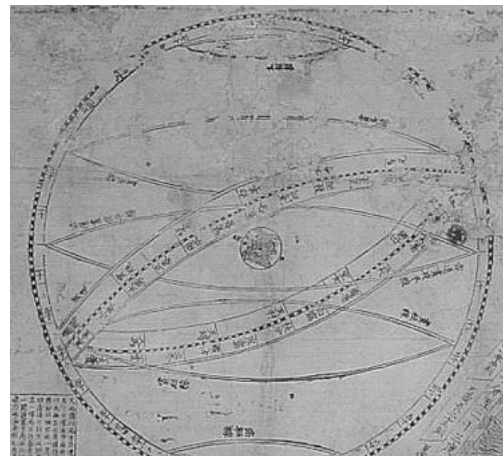
# 조선 후기의 과학문화재

## 전통 과학기술과 서양 과학기술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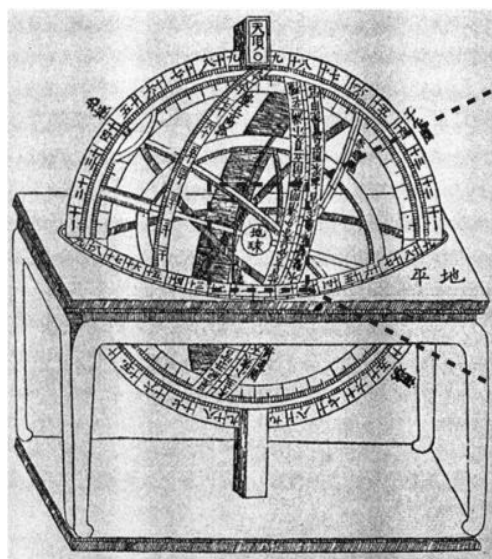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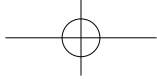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글 김상혁 한국천문연구원

과학적인 측정 행위를 수반하거나 과학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유·무형의 산물을 '과학문화재'라고 부른다. 과학문화재의 범주는 농업기기, 천문도와 지도류 등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조선 후기에 사용한 해시계와 천문관측기기로 분류되는 과학문화재를 살펴보려 한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과학문화재로는 이민철과 송이영의 혼천시계, 홍대용의 혼천의와 혼상, 김영의 적도경위의, 강운과 강건 형제가 제작한 휴대용 해시계, 박규수의 간평의, 남병철과 남병길 형제의 다양한 천문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유물은 몇 가지뿐이며, 이것도 일부 장치가 훼손되어 원형으로 남겨진 것이 드물다.

조선 후기 다양한 과학문화재의 출현은 15세기 세종대에 진행된 천문의기 제작과 시계 제작 프로젝트를 17세기 현종대에 다시 한 번 부흥시키려 했던 시도에서 출발한다. 송준길(1606~1672)은 전통적인 수격식 혼천시계와 서양식 자명종 동력을 이용한 추동식 혼천시계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양의 역법체계인 시현력이 1654년부터 시행된 것 역시 활발한 과학문화재의 제작과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01 <양의현람도>, 이증천도(상)와 십일중천도(하)



02 《훈천의설》의 훈천의도

### 서양 과학의 수용 - 구형의 地를 생각하다

1603년 명나라에 다녀온 이광정(1522~1627)과 권희(1547~1624)가 북경에서 간행된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1602)를 가져와 홍문관에 전했다. 1603년 이응시는 이 지도를 <兩儀玄覽圖>라고 명명하고 8매의 목판에 다시 새겼다. 극지방을 투영하는 방법이나 지구의 모습을 원으로 그리고, 여기에 육지를 그려 넣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지구를 구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두원(1581~?)이 1631년 자명종을 들여올 때 함께 가져온 《職方外紀》에는 지구의 구형과 중력에 대한 상세한 개념들이 들어 있었다.

아담 샬(1592~1666)이 쓴 《훈천의설》(1636)에는 지구가 달린 훈천의 그림이 있다. 1644년 김육(1580~1658)은 시현력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 갔고, 여기서 《훈천의설》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645년 북경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가져온 輿地球는 구형의 지구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17세기 초반부터 중반기까지 서양 과학기술 수용의 누적된 결과가 있었고, 시현력 체제에 따른 새로운 과학의 기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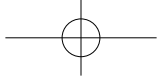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 조선의 명품시계 - 강건과 강윤의 휴대용 해시계

조선 시대 선비들은 오늘날 휴대폰보다 작은 크기의 시계를 가지고 다녔다. 진주 강씨 후손으로 한성판윤을 지낸 강윤(1830~1898)과 동생 강건(1843~1909)은 상아 같은 고급 재료로 휴대용 해시계를 만들었다. 이들 형제가 만든 해시계는 11점이 남아 있다.

사진 03의 유물은 1871년 강건이 만든 휴대용 양부일구이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인데, 指南針을 활용해 방향을 맞추고,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휴대용 양부일구는 직육면체이다. 윗면에 '양부일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북쪽에는 반구 형태의 시반면이 있고, 남쪽에는指南針과 24방향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시반면에는 24절기를 나타내는 13개의 계절선과 30분 간격의 시각선이 그려져 있다. 시반면 안에는 북극 방향으로 영침이 달려 있어 그림자를 읽어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다.

指南針 둘레에는 24방향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 황금색 종이로 바닥을 장식하였다. 유물의 좌·우 측면에는 24절기에 대한 글자가 12개씩 배치되어 있다. 동쪽에는 동



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의 글자가 있다. 서쪽에는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의 글자가 있다.

유물의 북쪽 측면에는 '北極高 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적혀 있고, 밑면에는 '同治辛未孟夏下瀨晉山姜澗製'라고 적혀 있어, 진산 강씨인 강건이 1871년 4월에 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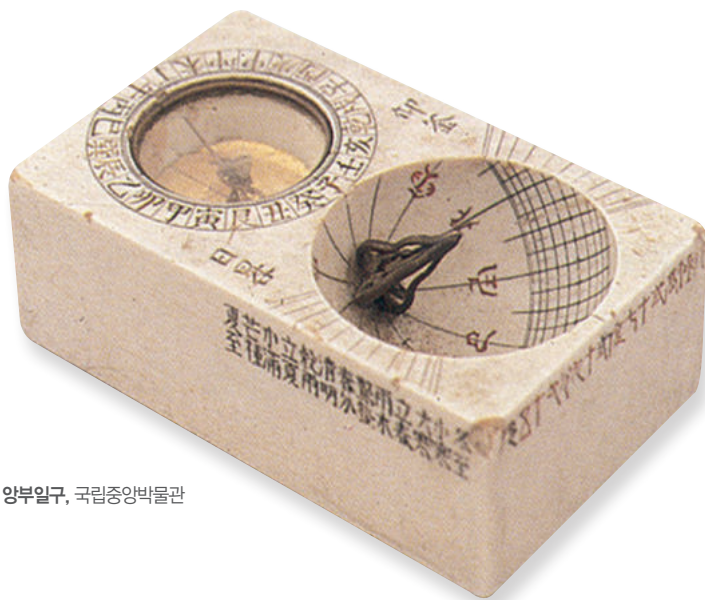
보물 제852호 휴대용 양부일구는 언제 어디서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양부일구의 고유한 기능에指南침을 첨부하여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해시계라고 할 수 있다.

강윤과 강건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1712~1791)의 증손이다. 그의 손자, 즉 두 형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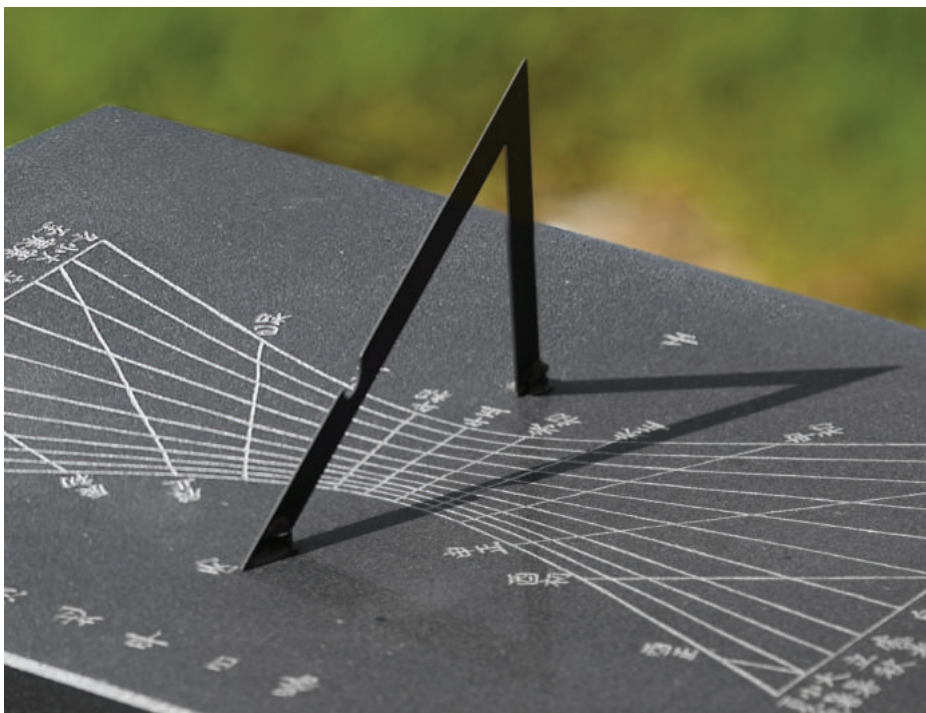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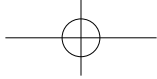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큰아버지 강이중(1783~1865)과 아버지 강이오(1788~1857)는 혼천시계를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건의 두 아들도 가업을 이어 해시계를 제작했다. 중인 출신의 기술자가 아닌 명문가의 3대가 조선 후기 휴대용 해시계의 전통을 이어간 것이다.

### 서양식 지평 해시계 - 신법지평일구

지평일구는 보통 평면 해시계를 말한다. 바닥을 이루는 평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선 형태의 선을 긋는다. 보물 제840호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가로 58.9cm, 세로 38.2cm, 두께 16.3cm이다. 18세기 초 관상감에서 만든 지평 해시계로 1636년 중국 명나라에서 만든 신법지평일구를 서울의 위도에 맞춰 새로 만든 것이다. 한양북극출지 37도 39분이라고 새겼다.



03 휴대용 양부일구, 국립중앙박물관



04 신법지평일구 삼각 영침 복원품, 한국천문연구원

영침 그림자의 방향과 위치로 시각과 날짜를 알 수 있는 신법지평일구는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여러 개가 현존하고 있다. 이 해시계의 시반면에는 13개의 시각선과 11개의 절기선이 있다.<sup>1)</sup> 연구를 통해 유실된 영침을 삼각 형태로 제작하였다. 삼각 영침의 빗면으로 시각을 읽고, 삼각 영침의 빗면 중간에 홈이 파여 있는 뾰족한 부분이 만드는 그림자와 절기선이 맞닿는 부분을 읽어 날짜를 알 수 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역법을 제정하고 하늘의 이치를 살펴 농사에 필요한 時와 때(날짜)를 알려주는 일은 국왕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조선 시대의 천문

의기 제작과 시계 제작 기술은 오늘날 과학문화재 복원이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다. 조선의 해시계와 관측기 등 과학문화재는 선조들의 창의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과학 유산이나 복원한 과학문화재는 전통적 과학기술과 미래의 과학세대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

1) 다른 신법지평일구와 양부일구의 절기선은 보통 13개이지만, 이 신법지평일구는 11개 절기선으로 그려진 것이 특이하다.

# 혼천의? 혼천시계!

글 김문숙 회원

만 원짜리 지폐에는 여러 점의 유물이 들어 있다. 앞면에는 ‘일월오봉도’와 ‘용비어천가’ 그리고 뒷면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천의’, 보현산 천문대의 ‘광학 천체망원경’이 있다. 2007년 이 지폐가 나왔을 때, 다른 유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유독 ‘혼천의’에 대해서만 설왕설래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혼천의가 중국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잇달았다. 한국은행은 “세종대왕 때 혼천의와 혼천시계가 제작됐다는 기록이 있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소재로 판단돼

도안으로 채택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세종 때 제작된 혼천의 실물이 없어 현존하는 국보230호인 송이영 혼천시계(1669년 제작) 가운데 혼천의 일부만 도안으로 채택했으며 이 ‘혼천의’도 중앙에 지구의가 있는 등 우리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 대해 ‘혼천시계 전체를 넣지 않고, 혼천의 부분만 떼어서 넣은 것은 잘못’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혼천의는 여러 번 보았고,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라는 걸 알겠는데, 혼천시계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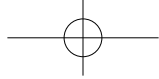


01 유증 혼천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2 혼천의, 도산서원





는 의문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해 전 고려대 박물관에서 혼천시계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날은 사실 ‘동궐도’를 보러 간 것이었고, 새 건물로 옮기기 전의 고려대 박물관은 전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냥 ‘혼천시계’라는 이름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혼천의는 고대 그리스, 서아시아, 동아시아 등에서 사용하던 ‘천체 관측기구’로 기원 전후 무렵부터 썼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후기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에서는 세종 20년(1438년) 이전, 장영실 등이 혼천의를 비롯한 여러 천문의기를 만들었으며, 그 후에도 명종, 선조, 효종, 현종 시대 등 여러 차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역법을 제정하고 농사에 필요한 절기를 알려주는 일은 국왕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었다. 세종이 각종 천문의기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우리 땅에 맞는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혼천의는 관청인 서운관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성균관이나 서원에서 교육 자료로 만들기도 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세 점의 혼천의 가운데 한 점은 명

재 윤증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것이다. 도산서원에도 혼천의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문, 이과 통합형’이었는데가 보다.

그렇다면 혼천시계는 혼천의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문화재청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복잡한 작동과정 설명을 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1669년(현종 10) 관상감의 천문학 교수였던 송이영이 만든 천문시계로, 홍문관에 설치하여 시간 측정과 천문학 교습용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 만든 천문시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로, 동양의 혼천의와 서양에서 발전한 추를 이용한 자명종의 동력을 결합시킨 독창적인 유물이다.” 사진 자료는 고려대 박물관이 옛 건물에 있던 시절의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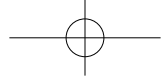
그런데 궁궐에 있었던 이 시계는 무슨 연유인지 1930년대 초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 나왔다. 물론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옛장수의 수레에 고물로 팔려 갈 운명이던 혼천시계를 사들인 사람은 당시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였다. 집 한 채 값을 주었다고 한다.



03 혼천의 및 혼천시계, 고려대학교박물관



04 혼천의 및 혼천시계 부분



이런 인연으로 고려대 박물관 소장품이 된 혼천시계는 그 뒤로도 1960년대까지 관심 가지는 이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여기에 주목한 이들은 오히려 외국의 과학사학자들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은 “세계 유명박물관에 꼭 전시해야 할 인류의 과학문화재”라고 평가했으며, 1960년대 말에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역사 기술 박물관이 특별 전시 및 복제품 제작을 요청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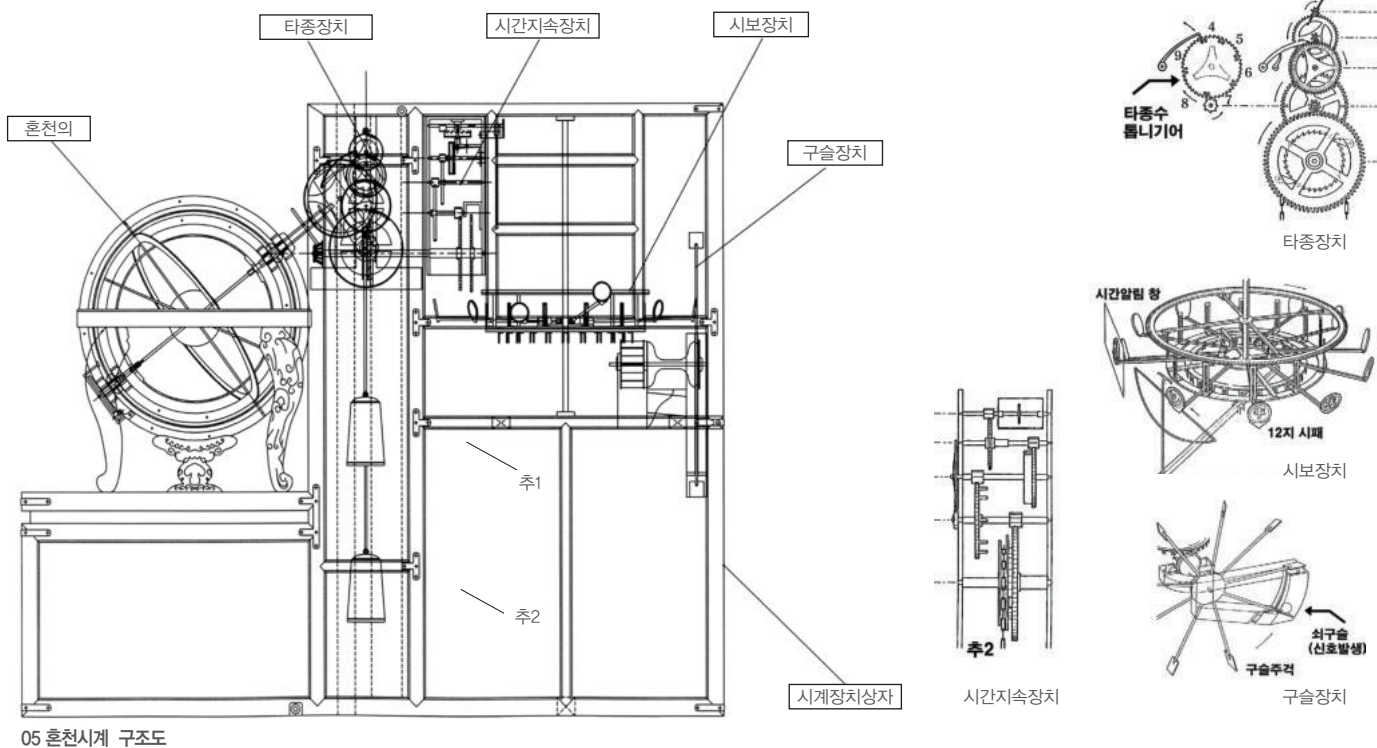
2005년이 되어서야 충북대 이용삼 교수팀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혼천시계 복제품을 만들었다. 혼천시계는 크게 혼천의 부분과 시계장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용삼 교수팀은 혼천시계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7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혼천의 바로 옆에 길게 내려뜨려진 것이 추. 자세히 보면 추가 2개 있다. 이 중 위에 있는 추(추1)가 시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과중시계에서 태엽에 해당하는 셈이다. 추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왼쪽의 혼천의, 오른쪽의 시계장치에 각각 전달돼 2가지 기구를 모두 돌린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오른쪽의 시계장치다. 혼천의 부분은 태양과 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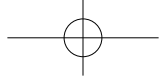
늘날의 달력과 가깝다. 추의 오른쪽에 있는 도르래 같은 것은 톱니기어와 탈진장치다. 그 오른쪽 아래 수평으로 있는 박스가 시보장치. 오늘날의 시계판에 해당한다. 시보장치에는 자, 축, 인, 묘 등이 새겨진 12가지 시패가 있다. 시패는 시계바늘이라고 보면 된다. 시보장치 옆쪽에 구슬장치가 있다. 타종장치는 두번째 추(추2)와 연결되어 있는데, 추의 뒤쪽에 있어 구조도에서는 겹쳐 보인다.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혼천의 뒤쪽에 종이 달려 있어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설명을 읽고 나니, 비로소 혼천시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때 만든 복제품은 현재 서울 낙성대 근처의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 있다. 2009년에는 혼천시계의 부품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 좀 더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복원했다. 이 시계는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추력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혼천의와 서양의 자명종 원리를 결합해 만든 우리 겨레의 과학문화재’라고 평가받는 혼천시계를 만나는 가려 길은 별로 멀지 않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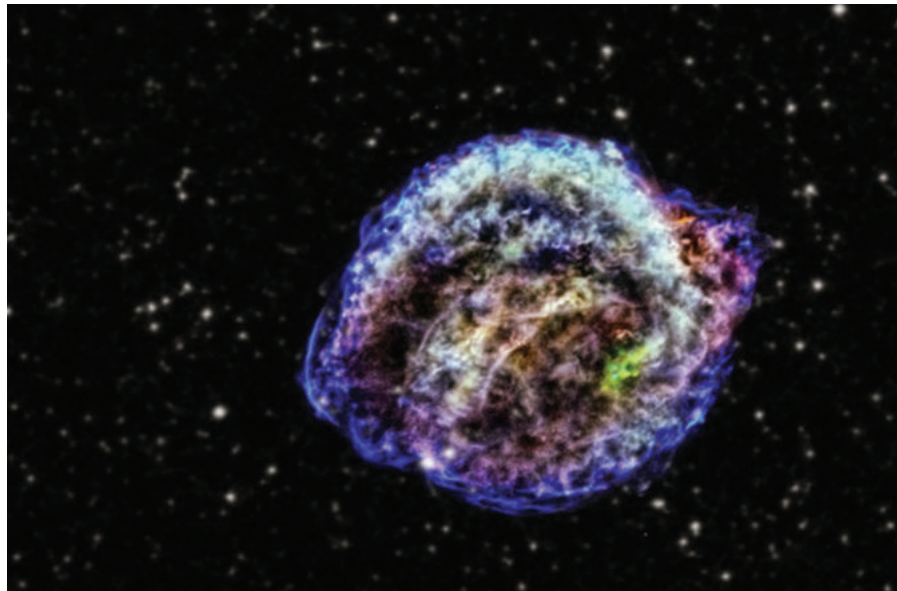


05 혼천시계 구조도



# 星變, 또는 우주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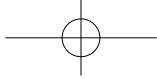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글 서유미 회원



01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 찬드라 X-ray 망원경 촬영 (Astronomy Picture of the Day, <http://apod.nasa.gov>)

2011년 봄, 어쩌면 그해 내로 초신성 폭발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느 천문학자의 주장에 귀가 쫑긋했다. 폭발의 주인공은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 오리온자리는 크고 밝아서 애써 찾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겨울밤 귀갓길 친구 같은 기분이 드는 별자리이다. 그 이후로 내내 지켜보면서 행여나 관측이 힘든 늦봄이나 여름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각, 아무렇지도 않게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중이다. 어쩌면 수백 광년 떨어진 그 별은 몇 백 년 전에 폭발하여 이미 없어졌고 남은 빛만 지구로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살아생전 초신성 폭발을 육안으로 볼 날이 올 것인가?

우주 전체를 볼 때 초신성 폭발은 희귀한 일이 아니다. 성능 좋은 망원경과 카메라의 보급으로 외부 은하의 초신성은 한 달에 몇 건씩 관측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1572년의 티코 초신성과 1604년의 케플러 초신성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客星’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선조 5년 10월 1일에 “객성이 책성 주변에 나타났는데 금성보다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티코의 초신성이다. 케플러 초신성에 대해서는 선조 37년 10월 23일 “초저녁에 객성이 미수 10도 거극 110도 자리에 있었는데 목성보다 작고 황적색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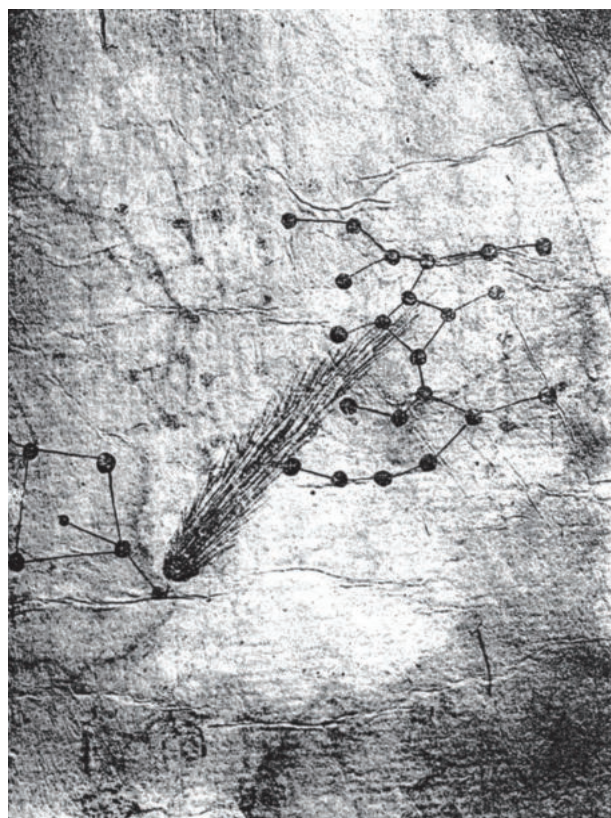


는 안개가 끼었다.”라고 기록된 것 외에도 선조 37년 9월부터 선조 38년 3월까지 7개월간 130개에 달하는 기록들이 있다. 이는 케플러의 관측보다 더 상세해서 우주의 팽창에 대한 연구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케플러의 기록과 실록의 기록을 함께 연구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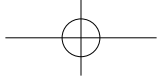
특이한 천문현상들은 원리를 알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이로운데, 옛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지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별의 위치나 빛에 생긴 이변을 星變이라 하는데 실록 등에 남은 성변 기록을 조사하다 보면 그 분량과 상세한 내용에 감탄하게 된다. 관상감 관리들이 하늘을 관측하여 기록한 것이 ‘星變測候單子’, 이것들의 모음집을 ‘星變臚錄’이라 하고 이를 실록 등을 편찬할 때 활용하였다. 만약에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었다면 매우 방대한 분량이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많은 양이 소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국립기상연구원이 펴낸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은 현종 2년, 5년, 9년의 측후단자를 번역한 것인데, 대부분 혜성에 대한 관측기록이다. 특히 현종 5년인 1664년에 왔던 대 혜성은 시리우스만큼 밝고 꼬리도 길었다고 하는데 측후단자에는 위치와 밝기 꼬리 방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불길한 것이 세 달 간이나 보였으니 왕과 중신들은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게다가 김익렴이라는 사람은 이를 계기로 정사를 바로잡으라며 중국 춘추시대부터 명나라까지 혜성이 출현하여 국가에 흉사가 발생한 기록을 모은 ‘歷代妖星錄’을 바쳤다고 한다. 여하튼 왕이 잘못을 바로잡고 죄수를 석방했으며 비단 짜는 일도 정지시켰던 덕이었는지 이 해는 큰일 없이 넘어갔지만 길게 보면 소빙기로 인한 정신대기근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고, 같은 해 유럽에서는 혜성의 출현과 함께 페스트가 창궐했으니 흉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헬리 혜성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다. 헬리 혜성이 조선에 처음 방문한 세조 2년, 혜성이 사라지고 5일 후에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었는데, 성삼문이 혜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실록에 기록된 총 여섯 번의 헬리 혜성 방문 중 영조 35년에 출현한 혜성에 대해 현종대와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기록한 성변등록이 남아 있다. 이 당시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였는데, 천체의 재앙을 늦추는 방도는 오직 세자가 몸을 돌이켜 수성하는 데 있다는 상소에 사도세자는 이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대답하는 기록이 있으나 결국 3년 뒤 뒤주 속에서 죽었으니, 혜성이 몰고온 재앙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다.



02 현종 5년 음력 10월 27일 (천변등록)의 혜성 묘사  
칼 루퍼스의 논문 <Astronomy in Korea>(1936)에 실린 사진



이쯤에서 옛사람들이 보았던 하늘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대기오염과 빛 공해가 없었기에 날씨가 맑으면 도성 한복판에서도 지금 우리가 오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많은 별을 볼 수 있었겠고, 현대인보다 눈이 훨씬 좋았을 테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도 훨씬 많았으리라. 이런 별들을 평생 보며 사는 사람은 불박이별의 위치 정도는 서울 토박이가 서울지리아는 만큼은 알지 않았을까? 그 하늘의 중심에는 궁궐이 있고 임금과 태자와 후궁 등이 있다. 감옥도 있고 궁을 둘러싼 담과 문, 자물쇠 자리도 있으며 궁궐에서 나가면 각급 관료들이 일을 보며 장수들은 궁을 지킨다. 그 주변에는 백성들의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서양의 하늘이 신화로 채워져 있는 반면 우리의 하늘은 지상 생활이 반영된 것이었으니, 하늘이 돌던 대로 돌고 있을 땐 안정감을 느끼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그곳에 해당되는 지상의 생활에도 어떤 흉한 일이 생길지 점쳐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늘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하는 위정자들은 성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상세한 천문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혜성, 초신성, 유성우, 일식, 월식, 햇무리, 달무리, 날씨는 물론이고 망원경도 없이 태양의 흑점을 관측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오로라 관측 기사까지 있다.

특히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통틀어 711개의 오로라 관측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세계 최다 분량이라고 한다. 게다가 11년 흑점 주기와의 맞아떨어져서 과거의 태양활동까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극지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을까 의아하겠지만, 지난 흑점 극대기인 2003년 10월에 국내 천문 역사상 처음으로 보현산 천문대에서 오로라를 촬영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03 목판본 별자리 그림 부분, 국립고궁박물관

오늘날 우리는 성변이 아니라 우주쇼를 즐긴다. 외계인이 침공한다든가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경우만 아니라면 하늘의 변화는 흥미롭고 낭만적이며 아름답다. 이제 위정자들도 마음 편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손가락만 놀리면 온갖 천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옛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늘에 더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우리보다 우주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늘을 경외하고 그 이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했기 때문이 아닐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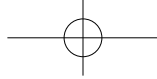
01 농경문 청동기 앞면, 청동기시대 BC 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청동기를 읽다

글 강현자 회원

‘農者天下之大本也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업의 근본이었죠. 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박물관 1층 선사·고대관 전시실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청동기·고조선실입니다. 여기, 이 독립된 진열장 안에 있는 유물을 만나봅시다.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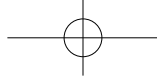


02 농경문 청동기 뒷면

데 중요한 유물이 1970년대 초반 대전의 한 골동품상에서 수집됩니다.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이 청동기 유물은 음각으로 새겨진 농경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농경문 청동기'라 불리게 됩니다.

손바닥 크기의 기와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청동기는 무엇에 사용했던 물건이었을까요? 여기 이런 궁금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물의 윗부분 구멍에 끈을 꿰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체 맨 윗부분에 네모난 작은 구멍 여섯 개가 보이죠? 구멍이 많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의복 같은 곳에 끈으로 매달아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으로 봅니다. 형태상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와 유사하며 기원전 4세기경에 제작됐다고 추정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아랫부분이 파손된 상태지만 원래는 방패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을 제작한 청동기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앞쪽 면의 중앙에 문살무늬 띠를 세로로 새겨 면을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남자가 두 팔을 굽혀 따비를 잡



고 다리를 벌린 채 발을 갈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이죠?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 사이에 성기를 묘사한 것이 보입니다. 남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발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유적인 울진 반구대암각화에도 성기를 드러낸 인물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왜 벌거벗은 채 발을 갈고 있을까요? 고대인들이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인간의 생식능력이 생명의 번식, 또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성기를 드러낸 인물상을 인간과 신 사이를 연결해 주는 특별한 능력을 갖는 제사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 풍년을 비는 제례를 주관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을 바탕으로 정착생활을 본격화하면서 큰 규모의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 지배층이 생겨나고 제사장급의 강력한 지배자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농업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 벌거벗은 채 따비로 발을 갈 수 있는 인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물은 강력한 지배자가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때 사용하는 의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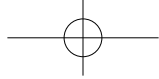
남자의 머리 위에는 새의 깃털이 보입니다. 새는 고대사회의 조류신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새와 제사장의 관계가 밀접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봅시다. 평행선을 가로로 새겨 이랑과 고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각형의 발이 보입니다. 진주 대평리 유적은 고랑과 이랑으로 이루어진 발이 발견된 대표적 유적으로 농경문 청동기에 그려진 발의 모양과 유사합니다.

밭고랑 아래쪽에는 팽이를 치켜든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여자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청동기시대에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농기구가 발달합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에 나타난 따비와 팽이 등 여러 농기구를 통해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농경도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면 왼쪽에는 여자가 수확물 같은 무엇인가를 항아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확물을 관리하는 계층이 생겨난 당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아가리가 좁고 몸통은 격자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토기에는 격자무늬의 흔적이 남아 있어 운반 또는 고정 시 편의를 위해 끈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물의 뒤쪽으로 가볼까요? 뒷면에는 세로로 새긴 문살무늬 띠를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두 갈래로 벌어진 나뭇가지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몸에 반점이 찍힌 새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속에서 보이는 솟대 신앙을 연상케 합니다. 예로부터 솟대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하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새가 곡식의 씨앗을 가져다 주거나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조령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가 그들의 풍요와 안녕을 하늘로 이어 주길 기원했을 것입니다. 나뭇가지 아래쪽에 새끼처럼 꼬인 고리가 달려 있는데, 고리는 청동기시대의 특징적 장식입니다.

따라서 이 농경문 청동기는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용 의기로서 제사장의 몸에 매달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동기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을 만났습니다. 🐣



03 농경문 청동기 앞부분



04 농경문 청동기 뒷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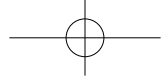
01 동지, 이억영, 국립민속박물관

# 긴 겨울밤 동지 이야기

글 계운애 회원

12월, 바람은 매섭도록 차갑고 해는 짧다. 또 밤은 길어 지루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까닭 없이 스산하다. 찬찬히 그 의미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나버린 많은 일을 되새겨 보며 한 해를 정리할 때이다. 회한에 젖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앞두고 있기에 희망적이기도 하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자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기대하는 12월에는 동지라는 명절이 들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지게 되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우리네 선조들도 양력 12월, 음력으로 11월인 동짓달에 동지라는 명절을 두어,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기념하며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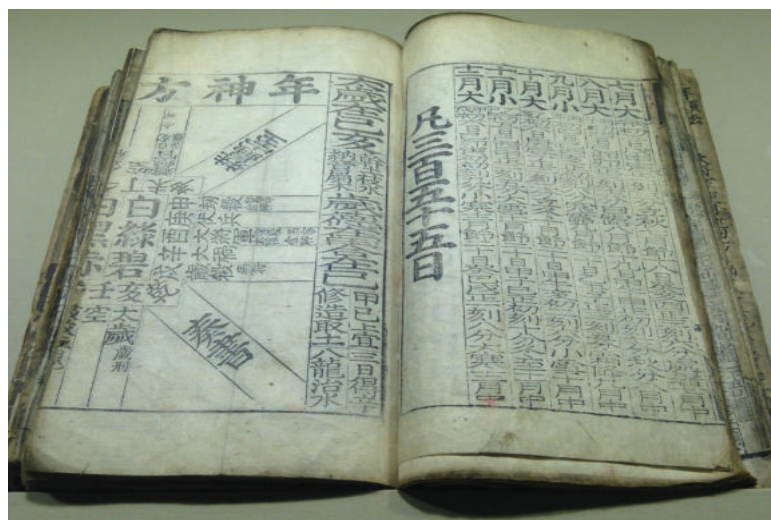
동지는 입춘부터 시작하는 24절기 중 스물두 번째 절기로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하지부터 조금씩 짧아진 해가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어둠으로부터 부활하는 날’이라 하여 경사스럽게 여겨 명절로 삼았다. 중국 주나라에서는 생명의 힘이 새로 시작되고 음의 기운인 어둠으로부터 양의 기운인 광명이 부활한다고 하여 동지를 설로 삼았다. 또 당나라의 역법서인 宣明曆에서도 동지를 ‘부활’의 의미로 여겨 曆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처럼 동지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을 두고 기념하며 축하한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만 있었던 풍속은 아니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지의 서양에서도 동지를 기념하는 동지 축제가 있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서양의 유명한 축제인 카니발 중 일부는 동지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동서양 모두 동지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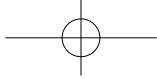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축하했다. 중국의 책력과 풍속이 전해져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의 충선왕 이전까지는 동지를 설로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동지를 '작은 설'이란 뜻으로 '亞歲'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며 설처럼 경사스러운 날로 여겼다. 궁중에서는 동짓날 임금과 왕세자, 문무백관이 모여 회례연이라는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지방 관리들은 임금님께 箋文을 올려 축하 인사를 하였다. 한편으론 해마다 예물을 갖추어 중국에 동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음력 대신 양력을 사용하고 양력 1월 1일에 신년 하례식을 거행하면서 이와 같은 동지 하례는 폐지되었다. 신년의 시작이라는 동지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동짓날에 행하던 하례식도 사라지게 되었다.

夏曆冬曆이라 하여 여름엔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에는 달력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동지 무렵이 되면 조선시대의 관상감에서는 책력을 만들어 궁중에 헌납하였다. 그리하면 궁중에서는 '同文之寶'라는 옥새를 찍어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고 관원들은 다시 이를 동지 선물로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농경 사회에서 24절기에 맞추어 만들어진 책력은 매우 귀중한 선물이었다. 어릴 적, 연말연시가 되면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던 길게 둘둘 말린 새 달력. 동그랗게 머리를 맞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달력을 한 장씩 넘겨 보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까지만 해도 달력은 받으면 좋은 선물로 대접받았다. 지금에야 흔하디흔해서 선물이란 의미는 없지만, 동지 무렵에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은 여전하다.

한편, 동지에는 시부모님께 버선을 지어 드리며 壽福을 빌기도 했는데, 실학자 이익은 “새 버선을 신고 이날부터 길어지는 해의 그림자를 밟고 살면 수명이 길어진다.”라며 장수를 비는 뜻이라 했다. 두툼한 솜을 넣어 지은 버선은 단지 발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늙어 가는 시어머니의 주름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된 세월을 살아온 삶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번 동지에는 선조들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새기며 주위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버선 대신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선물하면 어떨까.



02 시헌서, 국립민속박물관



설날에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과 같은 특별한 음식을 해먹는 것처럼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중국의 《형초세시기》에는 팔죽을 쑤어 먹게 된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옛날 진나라의 공공이라는 사람에게는 말썽을 일삼는 못된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공교롭게도 동짓날 죽어 천연두를 옮기는 무서운 역질 귀신이 되었다. 공공은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무서운 병을 옮기는 귀신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공공은 아들이 생전에 팔을 싫어했다는 기억을 떠올려 팔죽을 쑤어 대문과 마당 구석구석에 뿌려 나쁜 귀신을 물리쳤다. 묘하게도 그날 이후 마을에서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동짓날이면 팔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지금까지 동짓날에 팔죽을 쑤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팔죽을 먹지 않는 동짓날이 있다. 동지가 음력으로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 하여 팔죽 대신 팔 시루떡을 해먹기도 한다.

올해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중순에 들어 중동지이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팔죽을 나눠 먹으며 긴 겨울밤 동지 이야기로 동지의 의미를 새겨 보면 좋을 것이다. 고향의 어머니는 동짓날 팔죽을 쑤면 먼저 정성스럽게 정갈한 그릇에 담아 각 방과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두 손 모아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또 대문이나 담벼락에 “잡귀야 물러가라.”고 외치며 팔죽을 손가락으로 떠 뿌리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곡식 중에서 유난히 붉은 팔에 벽사의 힘이 있어 잔병을 없애고 잡귀를 몰아내어 액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머니 또한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상들의 풍속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요즘에도 아이가 태어나 10살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자라길 비는 마음으로 생일에 수수팔떡을 해 주고,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거나 이사를 하면 팔 시루떡을 이웃집에 돌리기도 한다.

팔죽으로 잡귀를 물리치려 했던 것처럼 뱀 ‘蛇’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면 액이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하여 부적으로 집 안이나 대문에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조상들의 이러한 믿음과 풍속을 모두 미신이라 하며 물리쳐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이어가야 할 풍속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생활이 바쁘다며, 번거롭다며 우리 고유의 풍속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우리 명절보다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 등과 같은 서양의 풍속에 더 의미를 두고 축하하고 있다. 우리 문화와 풍속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풍속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생각, 지혜가 배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상들의 숨결과 전통이 깃든 우리의 풍속을 이어 받고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03 동지 팔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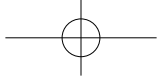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01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 청자 향로

글 강선영 회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해외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박물관 문화였다. 주립미술관에서 활동하시는 머리 희끗희끗한 도슨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곳의 문화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친근감마저 느꼈다. 그런데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결심했다. 돌아가면 꼭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이 결심은 뜻하지 않게 필리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의 경제적 상황 탓도 있겠지만, 이곳 박물관은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다. 새삼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널찍한 공간과 수준 높은 전시가 떠오르곤 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영어 도슨트로 일해 보려고 정보를 찾다가 박물관회의 강좌를 듣게 되었다. 첫 수업시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도착하여 시간표를 받았을 때, 각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의 면면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매 수업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내내 감탄했다. 특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도자기 수업은 두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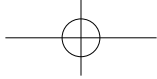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워싱턴을 여행할 때 《알기 쉬운 한국 도자사》(윤용이, 유홍준 지음)란 책을 읽고 한, 중, 일 세 나라의 도자기를 비교해 보겠다는 의욕을 품고 ‘프리어 갤러리’에 들어섰는데 그곳의 컬렉션이 너무 적어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도 형태가 웅장하고 힘이 잔뜩 들어 있는 용병 같은 중국 도자기, 색이 화려한 게이샤 같은 일본 도자기에 비해 수수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듯한 우리 도자기가 편안해 보였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아저씨가 아주 공감되는 말을 했다. “처음엔 중국 도자기에 매료되었다가 점차 일본 도자기의 화려한 색에 현혹되고 마지막에는 한국 도자기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귀국 후 국립중앙박물관, 호림박물관을 둘러보고, 강진 청자박물관까지 보고 나니 우리 도자기의 매력에 조금은 눈을 뜬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박물관회의 ‘조선 백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에서 받침에 토끼 모양이 있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보 제95호인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는 고려 전기 때 것으로, 투각된 구형 뚜껑과 연화형 몸체, 그리고 세 마리의 토끼가 있는 판형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02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 부분



03 통도사 명부전 벽화



04 표충사 대광전 수미단

길상의 의미를 가진 칠보무늬는 불교 경전에서 비롯된 칠보(극락이 금, 은, 마노, 산호, 거거, 진주의 일곱 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묘사)와 발음이 같다. 그리고 부처의 탄생을 알리려고 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렇다면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토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토끼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동물이다. 여기서 토끼는 꼬를 내어 거북 등에 타고 용궁을 탈출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별주부전은 부처님의 전생을 담은 '본생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통도사 명부전이나 남장사 극락보전 벽화에 거북 등에 탄 토끼 그림이 있고, 표충사 대광전 수미단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표충사 그림을 보면, 몰아치는 고행의 파도가 너무 심해 거북도 놀란 모양새다. 등에 올라탄 토끼 역시 성난 파도에 놀라 뒤 귀를 쫓긋 세우고 거북의 등을 꼭 붙잡고 있다. 이런 토끼와 거북 그림에서 거북은 인생의 고행을 얹은 꼬로 건너려 하는 토끼 같은 나약한 중생을 널찍한 등에 태워 피안의 극락 정토로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거북의 네 다리는 힘차게 고행의 물살을 가르고, 등 위의 토끼는 정면을 보며 귀를 쫓긋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모양새다.

청자 향로를 받치고 있는 세 마리의 토끼는 바로 어리석은 중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 사람들은 향을 피워 불단에 올린 후, 토끼로 표현된 어리석은 자신들이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

알립니다

지난 43호 회원마당에 실렸던 '과거와 현재의 파노라마'는 이석우 교수님의 '검재 정선의 양화환도'를 과도하게 인용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콩고강에서의 삶

글 계윤애 회원



01 가면, 푸누 족, 가봉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콩고강-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전시가 열리고 있어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중앙 아프리카의 예술을 만날 수 있다.

검은 대륙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하면 뜨거운 태양, 메마른 땅, 빈곤, 질병 등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삶을 향유하기보다는 고된 삶을 살아왔을 그들은 삶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호기심을 안고 전시실 문을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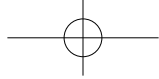
전시실에 들어서면 순간 극히 단순하면서도 짧게, 그리고 빠르게 반복되는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이 원시 밀림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다.

‘콩고강-중앙아프리카의 예술’은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

라 할 수 있는 콩고강 유역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세계를 ‘심장 모양 가면’, ‘조상 숭배’, ‘여인상’ 등 세 주제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총 71점의 유물은 모두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 소장품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인들이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국외로 반출되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서 타향살이하고 있을 우리나라 문화재가 떠오르며 비슷한 운명에 연민을 느낀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다양한 모습의 가면이 제각각의 표정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신비감을 한층 돋운다. 이름 붙여진 대로 눈썹에서 턱에 이르는 선이 심장 모양을 닮았다. 이 가면들은 사냥을 할 때나 사악한 기운





으로부터 조상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라는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런 목적이라면 위협적이거나 조금은 무서워 보여야 할 터인데 ‘투구 모양 가면’은 귀엽고 양증맞은 얼굴로 오히려 친근감이 앞선다. 뱀베족의 사냥 모임과 관련이 있다는 가면은 끔찍거리는 커다란 눈과 꼭 다문 입으로 비밀을 지키고 있다.

‘조상 숭배’의 방으로 걸음을 옮기면 유골함을 수호하는 수호자상과 선조상이 낯선 방문객을 막아선다. 아프리카 인들은 죽은 조상들이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후손을 보호해 주길 기원하며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예술로 표현하였다. 조상의 모습을 새기거나, 선조의 뼈와 두개골을 유골함에 보관하고 유골을 수호하기 위한 조각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원통의 나무를 파내어 그 안에 조상의 유골과 영적인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움베데 족의 ‘유골함 조각상’은 볼록한 가슴과 예쁘게 치장한 모습으로 보아 영적인 힘과 다산의 능력을 가진 여성의 유골을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뿔은 머리와 어깨에 두른 예쁜 장식,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예쁜 나무 인형 같다. 발걸음을 수호자상으로 옮겨 본다. 유골함 위에 두어 유골을 수호하게 하였다는 조각상들의 얼굴 모습이 어찌

좀 길다. 사방을 돌며 네 면에 얼굴을 조각한 팡 족의 수호자상과 음블루 은굴루(mbulu ngulu)라 불리는 코타족의 기하학적 형태의 수호자상은 19세기 말에 유럽에 소개되면서 피카소나 모딜리아니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낯설지가 않다. 모딜리아니 그림 속의 긴 얼굴의 여인상이나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이 겹쳐진다.

‘여인상’은 적도 이남 사바나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여 준다. 이 지역에서 여성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는 존재로서 통치자, 사제 등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높은 머리 장식, 두툼한 입술, 하얀 분칠을 한 여자 가면이 눈길을 끈다. 푸누 족 상류 계급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마와 볼의 상흔 문신이 인상적이다. 아프리카 여인의 얼굴이라기보다 일본 가부키 배우의 하얗게 분칠한 얼굴을 연상시킨다.

이번 전시회를 보고 생소하기만 했던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낯설음은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그들도 우리네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



02 수호자상, 코타 족, 기봉



03 유골함과 수호자상, 코타 족, 기봉



04 둥근 뼈이 달린 가면, 쿠엘레 족, 콩고공화국

# 玉厓 金振汝(1675-1760)와 18세기 초상화의 一變

글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조선 시대의 초상화에서 전통화법으로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던 시기는 숙종 연간(1675~1720) 청에서 서양의 지식과 문물을 도입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서학과 함께 들어온 서양화법은 형사와 전신을 요구하는 전통 초상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숙종대말에서 정조 연간까지 지속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전통 안에서의 혁신”으로 비유할 만하다.

얼굴의 오악 부위에 흥기를 부여하고 음영을 부분적으로 넣는 초상화법의 변화는 17세기 후반경부터 등장하였지만, 선묘 위주의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전반에는 서양의 명암법에 입각한 음영을 초상화에 적용함으로써 사실적인 표현에 무게를 두게 된다. 음영과 백광처리를 대비시켜 안면의 골격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려는 이와 같은 방식은 평양화사인 옥에 김진여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사되었다.

김진여의 초상화에 대한 연구는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변화와 흐름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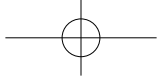
## II. 평양화사 김진여(1675-1760)

### 1. 가계

김진여의 가계 내력에 대해서는 『청주김씨세보』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1675년(숙종 14) 아버지 金紀萬(1620-1690)과 盧夢良의 딸인 어머니 交河盧氏 사이에서 6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淸州이고, 자는 德翼, 호는 玉厓이다.

김진여는 37세인 1713년 어진도사에 참여할 때만 해도 閑良에 불과했다. 그러나 숙종어진을 도사할 때 張泰興, 張得萬과 함께 동참화원으로 참여한 결과 이에 대한 논상으로 동반직을 제수받았다. 그가 부여받은 동반직은 종오품이었다. 이후 김진여의 나이 44세인 1719년 무렵에는 강계의 楸坡鎭에서 종사품의 만호로서 무관생활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방증해주는 산수인물화 한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림에 쓰여진 ‘秋坡’는 ‘楸坡’를 잘못 명기한 것으로 보이며, 김진여가 추파진 만호시절에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자를 거느린 고사가 폭포를 바라보는 고사인물화식의 주제와 인물의 자세 등에서 김명국에서 조세걸, 김진여로 이어지는 전통화풍을



01 <곤여만국전도> 부분, 1708년(무자년 9월), 29.0×62.0cm, 1932년 촬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상하게 한다.

세보의 기록이 옳다면 그는 추파진에서 방산진으로 옮겨 갔고, 致仕하기 전 정삼품에 해당하는 병마동첨절제사를 역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간에 그는 조세걸의 제자로서 숙종대에 어진도사에 참여하였고 그 공로로 정오품에서 정삼품에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화업의 입문과 활동

그가 초상화가로서 독자적인 경지에 이를 정도로 역량을 키운 것은 조세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조세걸은 53세인 1688년 태조영정모사에 어용화사로 참여하였을 당시, 피부색을 잘 내는 화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후 1695년에는 숙종어진도사에 주관화사로 참여할 정도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는 다양한 작품과 화풍을 목도하고 모사한 결과 초상화의 설채 방식에서 나름의 체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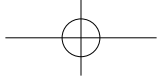
그는 1708년 숙종의 명으로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는 커다란 영예를 안았고, 1712년 <李如柏 초상>을 그리게 되면서 초상화가로서 주목받는 행보를 시작하였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민진원이 謝恩副使로 청나

라에 다녀오면서 김진여로 하여금 평양 武烈祠에 봉안된 이여백의 초상을 모사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진여는 1713년 숙종어진도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御眞都監提調를 맡은 김진규와 민진원의 추천으로 진재해 등과 함께 御用畫師로 발탁되었다. 외방화사인 김진여가 당대의 실력 있는 화가들과 겨루어 어진제작에 참여하여 화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 Ⅲ. 김진여의 초상화풍

김진여의 초상화는 안면의 요철과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8세기 전반 초상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숙종대에 수용된 서양화법은 김진여를 비롯한 화원들에 의해 선 원근법과 음영법을 위주로 표출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이 인식한 서양화법은 대체로 인물의 생생한 모습, 명암의 구사에 의한 입체감,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 건물의 투시법, 원근법에 의한 입체적 묘사, 공간감의 표현 등으로 요약된다.<sup>1)</sup> 특히 초상화에서의 서양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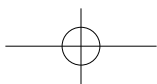
02 신임 초상, 《기해기사첩》, 조선, 1719년, 비단에 색, 보물 제 929호,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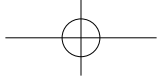
이런 얼굴의 요철을 나타낼 때 도드라진 부위는 白光(하이라이트)처럼 밝게 처리하고, 오목한 부위를 어둡게 칠해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2)</sup>

김진여는 조세걸의 영향을 포함하여 숙종대에 수용된 중국의 인물화나 지도 등을 모사하면서 대상을 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때 그는 초상화에 서양화법을 도입하여 화풍의 변화를 꾀하였다.

김진여와 서양화법의 관련을 연결해주는 작품이 1708년(숙종 34년) 〈곤여만국전도〉(보물 제849호)이다.<sup>(도1)</sup> 바다 위에 특히 날개 달린 동물의 몸체와 얼굴 부분에는 음영을 가해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이 그림에서 음영은 빛과 그림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명암법이라기보다는 그 형식을 차용한 것에 가깝다. 비록 모사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동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서양화다운 시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서양화법에 대한 김진여의 관심은 초상화에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치중하게 된다. 그것





은 1719년과 1720년에 걸쳐 김진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화원이 그린 《기해기사첩》에서 확인된다.

이 화첩의 25면에는 前萬戶인 김진여를 시작으로 장태홍, 그리고 副司果인 박동보와 장득만, 허숙 등 화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도화 업무가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운영되었고, 엄격한 규범 아래 실행되었다. 특히 1713년 숙종의 어진에 관한 『御容圖寫都監儀軌』를 보면 어진 제작에 참여한 화원의 이름은 주관화사를 첫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동참화원, 수종화원 순으로 기록하였다. 김진여가 《기해기사첩》을 제작할 당시 주관화사로서 역할을 하였던지는 알 수 없으나 畫員秩을 차등적으로 기록하는 관례로 볼 때 다섯 명의 화원들 중에서 김진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이름이 가장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고, 품계도 가장 높은 점은 이를 반증한다.<sup>3)</sup> 더구나 그는 설채에 뛰어난 특장을 지닌데다 누구보다도 얼굴의 골격과 피부의 질감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장첩된 기로신 10명의 초상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안면을 하이라이트와 음영을 대비시켜 요철을 살린 김진여의 초상화풍이 역력하다. 특히 〈홍만조 초상〉은 얼굴의 오목한 부분과 주름에 음영을 넣어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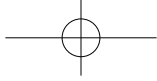
얼굴은 연백으로 배채하고 산화철로 음영을 가한 다음 윤곽을 짓고, 입술은 진사와 산화철을 섞어 설채한 결과이다.<sup>4)</sup>

이와같이 18세기 전반 김진여를 비롯한 당시 화원들이 얼굴의 오악부위를 의식하면서 입체감을 고려하여 그렸다는 사실은 81세의 〈申任(1639~1725) 초상〉<sup>(도2)</sup>을 통해서도 자명해진다.<sup>5)</sup> 얼굴의 요철을 입체적으로 연출하기 위하여 오목한 곳을 산화철로 바림함으로써 하이라이트와 대비시켰는데, 이것을 통해 김진여가 얼굴 근육과 피부를 실재감 있게 나타내는데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적 특징은 옥색 도포를 입은 1722년 작인 작가미상 〈신임 초상〉<sup>(도3)</sup>과 반신상의 〈신임 초상〉에서도 엿보인다.

이와같이 안면의 근육과 피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김진여의 초상화풍은 〈안윤행 초상〉, 〈윤급 초상〉 등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03 신임 초상, 조선, 1719년, 비단에 색, 국립중앙박물관



#### IV. 맺음말

김진여가 홍염이나 선묘 위주의 17세기 초상화법에서 점차 벗어나 입체적인 얼굴표현에 주력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자 노력의 결과이다. 그는 골상에 의거하여 볼록하고 오목한 얼굴 부위에 하이라이트와 음영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인물을 방불케 그리려고 하였다. 얼굴의 근육과 피부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려는 방식은 김진여가 새롭게 시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가 이처럼 실제 인물을 대하듯 얼굴의 입체감을 강조한 까닭은 숙종 연간(1675~1720) 어진도사 시 '彷彿'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상화를 그릴 때에는 인물에 내재된 정신과 고유한 모습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형상이 닮지 않으면 재현된 초상화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어진을 그릴 때에는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게 그려야 한다는 엄격한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김진여를 비롯한 여타화가들로 하여금 서양화법에 대한 수용을 더욱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진여는 <곤여만국전도>를 모사하면서 익힌 서양화법을 초상화에 적용하여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후대 초상화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초상화는 당대의 감평가인 권섭을 비롯한 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변화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 
- 1) 이성미, 『조선시대 후기 회화에 반영된 서양화법』(서울: 대원사, 2003), p. 126.
  - 2) 조선미 교수는 이러한 기법을 윤염법, 즉 안면의 움푹 들어간 부위에다 안료를 묻힌 붓을 되풀이하여 덧칠함으로써 요철, 즉 입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명대 경경(1568-1650)이 창안한 증경화법으로 보고 있다. 조선미, 『초상화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서울: 문예출판사, 2004), pp.159-160; 반면 이성미교수는 서양화법의 도입으로 보고 있다. 이성미, 위의 책, pp. 126-143.
  - 3) 이 계첩을 제작할 때 참여한 장태흥, 장득만, 허숙은 1713년 어진 도사시에도 김진여와 함께 참여한 회원들인데 당시에도 김진여의 이름 다음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御容圖寫都監儀軌』 참조.
  - 4) 국립중앙박물관 編, 『조선시대 초상화Ⅲ』(서울 : 그라픽네트, 2009), pp. 228-235.
  - 5) 골상법에 의한 오악사고에 의한 관념은, 문동수, 「사대부초상의 재발견, 사후초상」, 국립중앙박물관 編, 『초상화의 비밀』(서울:그라픽네트, 2011), pp. 270-271.

#### 심사평\_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18세기 초 조선 화단에 서양화법이 수용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김진여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로,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고증이 충실하고 치밀하다.



동자무늬 꽃모양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청자실

## 풍경을 마시다

글 강현자 회원

‘동자무늬 꽃모양 대접’은 찻그릇이다.  
 틀을 이용해서 찍은 도드라진 무늬를 살펴보면  
 그릇 안쪽 바닥에 물고기 한 마리가 유유자적 노닐고  
 안쪽 면에는 연꽃 위로 물새들 날아다니는 연못에  
 동자가 귀엽게 놀고 있는 풍경이다.  
 동자 무늬는 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에 자주 등장한다.  
 신성함, 다산, 풍요 등을 상징한다.  
 테두리가 여섯 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어  
 ‘꽃모양 완’이라고도 부른다.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런 연못 풍경이 꽃잎에 들어 있다.  
 비색의 은은함이 투명하게 우러난다.  
 이 꽃잎에 담긴 풍경을 마시는 이 누구인가.



# 한국박물관회연맹(KFFFM)

## 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한국박물관회연맹(KFFFM)은 국내 박물관 후원 단체가 모여 박물관의 발전 및 후원인, 후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결성되었다. 현재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후원회와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WFFM 부회장을 맡아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지역 박물관 후원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WFFM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지역 뉴스레터 발간

한국박물관회연맹(KFFFM)은 아시아 지역 박물관 후원회 소식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 참여국은 한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5개국으로 각 나라별 다양한 후원행사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의 소식을 전한다.



### WFFM 함부르크 집행위원회

지난 11월 8~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WFFM 집행위원회에 WFFM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지역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KFFFM 윤석민 부회장이 참석하여 KFFFM 후원활동을 홍보하고, 내년 베를린에서 있을 WFFM 국제대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14 WFFM 베를린 국제대회

세계의 박물관 후원인들이 3년마다 모여 학술 발표 및 강연회를 통해 박물관 후원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국제대회가 내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2014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WFFM 회원뿐만 아니라 박물관회 회원 및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www.wffm2014berlin.com](http://www.wffm2014berlin.com)

대한민국의 박물관을 후원합니다.

문의\_한국박물관회연맹 사무국 02-2077-9793





## 2014년도 38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모집

37년간 개설되어 온 국립중앙박물관회 특설강좌는  
전문 강사진에게서 우리 역사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모집대상:**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기간:** 2014년 1월 6일부터 접수

**신청방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현장접수)  
또는 [www.fnmk.org](http://www.fnmk.org) (인터넷접수)

**신청서류:** 수강신청서(현장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교육회비:** 480,000원 (1년 수강료)

**모집인원:** 화요일반 200명, 목요일반 200명

**수강기간:** 2014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17:00)

**수강과목:**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인류와 문화, 비교문화론, 형질인류학  
고고학개론,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낙랑 문화,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가야 문화  
발해 문화, 몽골 문화, 중국 고대문화, 일본 고대문화  
중앙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 문화

중국 도자,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중국 회화, 한국 산수화, 한국 인물화, 한국 풍속화, 궁중 미술, 한국 근현대 미술  
한국 불화, 중앙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 미술  
인도 불교조각, 중국 불교조각, 한국 불교조각, 불교 금속공예, 석조미술  
한국 건축, 한국 와전, 한국 목공예, 한국 복식, 한국 음식, 한국 고지도  
한국 금석문, 한국 고인쇄, 한글, 한국 서예  
종교문화, 불교사상, 유교사상  
보존과학, 한국과학사, 한국 음악

**고적답사:** 4월 공주지역, 5월 부여지역, 6월 익산지역, 9월 충주지역, 10월 강화지역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02. 2077. 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mailto:gomuseum@hanmail.net)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監 事 | 金義炯 金教台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埜旻    프라이어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金信韓    대성 부사장

##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에올 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金承謙    (주)서릉통상 부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李圭植    경신금속 대표  
 金芝延    (주)건설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주)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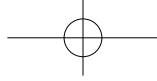
##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사장  
 李宇鉉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金榮秀    호성흥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愼昌幸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열화당 대표  
 李起雄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주)화승R&A 부회장  
 金南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金寧慈 (재)예을 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  
 丁恩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사장  
 李海珍 NHN(주) 이사회위원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전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金載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수석 부회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부관장  
 李宰旭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룹 이사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상무  
 楊仁集 진로재팬 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대법원법원행정처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사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무이사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상무  
 許允烘 GS건설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상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姪 회원  
 金教台 삼성회계법인 대표  
 宋哲 성문출판사 대표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萬玉 회원  
 金東官 한화솔라윈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  
 崔正勳 대보건설(주) 전략기획실장  
 崔雄善 (주)인팩 대표  
 朴璟鎭 (주)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JTBC 부사장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倫壽 지리산 문학관장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02. 2077. 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